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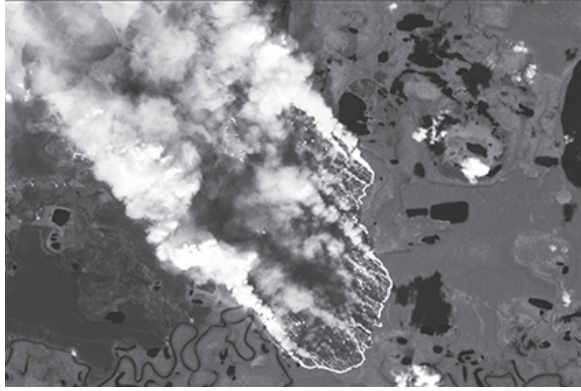
아마존 열대우림, 8월에만 축구장 420만 개 넓이 잿더미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420만 개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연합뉴스'는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8월 중에만 2만9천944km²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의 6천48km²와 비교하면 5배에 가까우며, 지난 2010년 8월(4만3천187km²)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INPE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8월에 발생한 산불은 3만901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8월의 1만421건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하고, 2010년 8월의 4만5천18건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았다. INPE의 관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998년 이래 8월 평균치인 2만5천 건과 비교해도 20% 이상 많고, 8월을 기준으로 산불 건수가 2만5천 건을 넘은 것은 2011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이달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행사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주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문제가 유엔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볼리비아·콜롬비아·에콰도르·가이아나·페루·수리남·베네수엘라·프랑스령 기아나 등 9개국에 걸쳐 있다. 전체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브라질에 속한 지역은 '아마조니아 레가우' (AmazoniaLegal)로 불리며, 브라질 국토의 59%를 차지한다. 브라질의 27개 주 가운데 9개 주가 열대우림을 끼고 있다.

이란, “우라늄 농축 가속 기술 개발할 것”

이란 정부가 우라늄 농축을 가속하기 위한 신형 원심분리기 개발 등 핵활동 관련 연구·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전날 국영TV 연설에서 “여러 종류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신형 원심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 가속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든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연구·개발에 대한 모든 제한사항은 오늘 6일 해제될 것”이라며 “원심분리기 개발은 핵협정에서 명시한 의무를 감축 이행하는 3단계 조치”라고 말했다.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국(영·미·영·프·러·중+독)과 체결한 핵합의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핵시설 2곳의 원심분리기만 평화적 목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현재 포르도 농축시설에 1044기, 나탄즈 농축시설에 5,060기의 1세대 원심분리기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이날 발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심분리기 성능을 개선하거나 추가 원심분리기 개발에 나선다면 우라늄 농축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AFP 통신은 “더 발전된 원심분리기를 개발한다면 핵무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수배 더 빨리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 및 경제제재에 반발, 지난 5월 핵합의 의무 이행 범위를 60일마다 차례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1단계 조치로 농축 우라늄(U-235 우라늄 300kg)과 중수 저장 한도를 넘겼다. 이어 지난 7월7일에는 2단계 조치로 우라늄 농축도를 상한(3.67%)보다 높이겠다고 선언, 실제로 4.5%까지 농축했다.

영국 하원, ‘노딜 브렉시트’ 3개월 연기 법안 처리

영국 하원이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표결 끝에 찬성 327표대 반대299표로 28표 차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당이 결의안 반대 당론을 어긴 소속 의원 21명을 제명하는 등 반란표가 속출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상원에서 수정 통과될 경우 다시 하원 승인을 거친다. 이후 여왕의 재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효된다. 오는 10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즉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영국 정부는 오는 10월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조건에 합의하거나 ‘노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둘 다 실패할 경우엔 보리스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또 만약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경우에도 하원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가 이를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노딜 브렉시트 강행을 주장하며 이 법안에 반대해 온 존슨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정부의 협상 능력을 파괴한다.”면서 오는 10월1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고 요청했지만 하원 통과에 실패했다. 하지만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속 보수당의 의석이 전체 640석 중 289석에 불과해 조기총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